

“밥상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귀족 된 기분이에요”

재능기부 스토리

소외 이웃 향한 ‘희망 사다리’

치매·신용불량 위기 가구 침구류와 식료품 긴급 지원 차가운 모델방 녹인 새 이불...기부로 잇는 ‘삶의 의욕’

‘동화나눔봉사단’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옥님 선생님께서 코사지 508개를 손수 만들어서 광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광주재능기부센터와 광주공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이옥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남과학대 이수영 교수께서 각종 생활용품들을 기부해주셨습니다. 기부를 이어가고 계시는 이수영 교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0대 김모씨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씨는 현재 모델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해왔는데 경기가 안 좋아 늘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혼하고 이후로는 혼자서 지내왔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돼 통장 거래도 못하고 카드 발급도 안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일용근로자로 일해 왔지만 나이에 자주 나가지 못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매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번잡함이 있어서 옷이 자주 더럽혀져 기저귀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모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 기

초수급 생계비를 통해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사가 간단한 집안 일과 약 복용 등을 도와주고 있지만 개인 위생이 취약한 상태이고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불이 더러워 교체기 시급하고 모델방 안에서 가스 버너로 밥을 해 먹고 있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와 압력밥솥을 구입해 지원했고, 쌀과 라면 등 식료품에 대한 지원도 함께 했습니다.

김씨는 나이 들어 혼자 살다 보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데 도움을 받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건강도 회복하기를 바라고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0대 김모 여성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씨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남편과는 이혼하고 자녀들과의 교류가 단절돼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 생활하던 중 명의도용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변제할 능력이 안돼 신용불량자로 전락.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쳐 수술을 해야 했지만 심한 당뇨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가 돼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워낙 3개를 제거한 모든 치아가 소실돼 저작 활동이 어려워 밥에 물을 말아 삼켜 식사하거나 유동식 형태로 음식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코사지 508개를 직접 만들어 기부한 이옥님(오른쪽) 봉사자와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내장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틀니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치과원장의 도움을 받아 검진했고 틀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아직 50대라 보험적용이 안돼 자부담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이가 없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남들이 맛있는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틀니를 하고 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김씨가 치료를 잘 받아서 음식 섭취도 잘 하고 건강도 되찾아 가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0대 김모 어르신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씨는 일찍 배우자와 이혼했고 이후로는 자식들과의 교류가 끊겨 전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지지체계가 전혀 없어 오로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5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아 두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보니 약 복용을 빼 먹을 때가 많아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병원 동행 서비스도 받고 있습니다.



▲60대 김 모 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압력밥솥과 라면



▲70대 김 모 어르신을 위한 이불 지원



▲70대 김 모 어르신을 위해 지원한 침상

김씨는 주택 2층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안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청소가 안돼 냉장고 안 음식들이 상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시락을 제공받고 있기는 하지만 치아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고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생활지원사가 파견돼 말벗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어 한결 외로움은 덜하다고 합니다.

생활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니 밥상이 없어 방바닥에서 식사하고 있고, 이불이 너무나도 낡아 버려야 할 상태이고 식료품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밥상을 지원했고 침구류를 구입해서 새로 갈아

드렸습니다. 또한 식료품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김씨는 방바닥에서 밥을 먹을 때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는데 밥상에 앉아 식사하니 귀족이 된 것 같아 너무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또 다 해진 이불을 덮고 잘 때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처럼 여겨졌는데 새 이불에서 잠을 자니 너무 편하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씨가 혼자서 힘들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자신을 생각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껴 더 평안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센터에 대한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